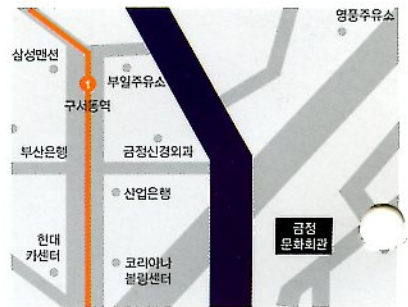


계속

학술지 출간 2003. 12 학술지 MIOT 2호 출간
2004. 12 학술지 MIOT 3호 출간
2006. 12 학술지 MIOT 4호 출간

MiOT 후원 회원가입 신청 (018-566-1584 www.miot.or.kr)

본 팸플릿은 초대권을 대신합니다.



MiOT

Music in Our Time
우리시대음악

November 1, 2011 / 7:30 p.m. Keumjung Cultural Center
2011. 11. 1 (화) 저녁 7:30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 주최 : MiOT
- 후원 : 부산시 문화재단
- 문의 : 701-1584 / 018-566-1584
- Fax : 702-2584

MiOT

Music in Our Time
우리시대음악

www.miot.or.kr

제 14 회

the 14th MiOT 2011

젊은 작곡가들 그때와 지금

Young Composers Now and Then

2011. 11. 1 火 PM 7:30

November 1, 2011 / 7:30 p.m. Keumjung Cultural Center
2011. 11. 1 (화) 저녁 7:30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젊은 작곡가들 그때와 지금

현대음악의 도래를 강력히 시사했던 1910년대는 음악발전사를 통 털어 유례없는 전환기로 기록된다. 세기말, 슈트라우스R. Strauss, 말러Mahler의 황금시대를 배경으로 이곳저곳에서 태어난 30세 전후의 '젊은 작곡가들'이 제시한 음악은 경악할 정도로 당시의 흐름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미지의 그 젊은이들이 들고 나온 음악이 결국은 20세기 전반기를 장식한 현대음악의 확고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일백 여 년이 흐른 지금은 그들의 음악어법이나 표현양식이 시대음악에 깊숙이 침투, 흡수 되었고, 또 한 번의 격변, 2차 대전 후의 총체적 환경은 음악의 양적, 질적 팽창을 불러와 다 '양성의 극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십팔 구세기를 도도하게 흘러간 '단일양식'으로부터 탈출한 그들과는 달리, '지금' 작곡가들이 직면한 과제는 방대하게 축적된 자료에서 취향과 의지에 따라 선택과 포기, 또는 절충의 양식으로 채택해야 하며, 그것은 오로지 작곡가 개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의 작곡가들이 가진 음악적 유산은 상대적으로 선명한 것 이었다; 통일된 화성체계, 발전적 주제의식, 순환적 소재활용, 정점 지향적인 흐름,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대단위의 장 단조 모드major-minor mode 내에서 실현된 점이다. 고유문화의 국민적 열망이 음악의 세계적 통용어로 반영된 것도 그 때였다; *Petrushka*에서 러시아의 향기를, *Allegro Barbaro*에서 헝가리 말의 억양과 인접유럽의 '민속적 향기(folkloric)'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상투적인 리듬패턴과 맥박을 파괴하고 유선형으로 갈고 닦은 전통적인 멜로디의 표현양식과 대위법적 기교는 찾아볼 수 없는 원시적primitive 작법으로 역동성은 폭발한다.

이와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또 하나의 축은, 비엔나의 쇤베르크Schönberg를 위시한, 베르크Berg, 베베른Webern 3인이 주도한 1910년대의 비 조성atonality(의 이론체계, 12음-음악, 1924) 음악에서 극명하게 들어난다. Stravinsky-Schönberg의 양분된 미학사상과 음악어법은 1910-1945년의 거대한 축으로 정리된다. *Five Pieces for String Quartet*는 위에서 언급한 두 곡과는 달리, 음 하나하나의 섬세함과 압축되고 격렬한 표현으로 일관한다. 표현의 극대화expressionism 라는 점에서 전시대 낭만음악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작곡가들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1910년대가 전해준 격변의 시그널을 우리는 말러와 슈트라우스, 그리고 동시대 음악을 배경으로 들을 때, 비로소 메시지는 확실하게 들려온다. 그러나 현재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옛것과 현재의 만남'을 토대로 그들은 작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한 없이 사용하며, 원한다면 어떠한 권위적 자산도 서슴없이 폐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음악을 투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본 음악회의 취지로 미루어 참으로 과중한 책임도 있다.

오늘 밤 연주는 절반의 추천과 경쟁을 거친 부산출신 3명과 대구출신 1명의 작품을 그때의 작품을 배경으로 들어보는 자리이다. 이들은 한결 같이 각자 대학의 최고과정에서 창작의 실제와 이론적 무장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이 들이다. 역사의 계속성과 시대정신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일면을 그들이 선택한 소재 (민속적 자아; 이화연, 오용철, 성서적 근원; 박정영, 정희영)에서 엿볼 수 있고, 진지하게 정리된 작품으로 작곡가의 투철한 의지를 응변한다.

'젊은 작곡가들'과 청중의 만남은 성장의 귀중한 계기와 활력소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술감독 강 순 희

I. Stravinsky (1882-1971) *Petrushka* 페트루쉬카 (1910-11, 29세)

piano 최정윤 이진성

페트루쉬카는 스트라빈스키 초기에 쓴 발레음악으로 당시의 음악계를 충격과 감동으로 뒤흔든 곡이다. 관현악 원곡을 여기서는 4-핸드 피아노로 정리된 곡 일부만 채택했다. 원곡으로 듣는 색채감이나 음향적 량 감에는 다소 손색이 있으나, 곡의 핵심적인 요소(전음계적 화성의 복합적 결합, 불규칙적인 리듬과 맥박)들이 결집된 역동성과 생동감을 충분히 전달된다. 과거와는 달리 정진적 발전기법을 취하지 않고, 스트라빈스키 특유의 부분적 결합(sectional form)을 발제한 결과, 조각처럼 들릴 수 있다. 러시아 출신의 스트라빈스키는 20세기 초반을 장식한 현대음악의 거대한 족을 이루고, 초기는 주로 파리에서, 1920년 이후 부터는 미국에서 활동했다. 발레음악 외에도 그의 작품은 다양하고 방대하여 3단계적 작품양식으로 구분되고, 악기편성매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곡들이 거장 프로듀서 디아길레프 또는 조지 발렌친에 의해 안무 되어, 발레예술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기도 하다.

A. Webern (1883-1945) *Five Pieces for String Quartet* 현악사중주 (1909, 26세)

violin1 박광식 violin2 김채원 viola 김세연 cello 장여정

이 곡은 전통적인 현악사중주의 표본과는 달리, 언급할만한 멜로디, 확인할 수 있는 화성구성, 통속적인 종지형태 같은 것을 취하지 않는다. 멜로디나 리듬의 역할은 축소되고, 작품의 통일성을 확고하게 보장할 반복적인 요소도 없는 간결하고 응축된 표현을 지향한다. 흐름은 상호관계의 밀접한 연속성이기보다, 차라리 음악적 이벤트의 병렬juxtaposition 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음악에서 중요한 음고pitch, 음정interval의 처리는 벌써부터 작곡가의 이론적 독자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비엔나 악파의 12-음 음악은, 3인 작곡가의 치열한 작품 활동, 미학적 근간, 선명한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20세기 초반을 장식했다. 이 곡은 12-음 음악 이론정립 이전의 작품이지만, 그 미학적 사상은 이미 확립된 곡이다. Webern은 다른 두 작곡가와는 대조적인 표현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B. Bartok (1881-1945) *Allegro Barbaro* 알레그로 바바로 (1911, 30세)

piano 최정윤

제목에서 암시하듯 이 곡은 거칠고 난폭하게 연주하라는 주문이다. 비대칭적인 강세, 정확한 템포, 부드러운 연결을 원치 않는 무 레기타의 수사방식이 곡 전체를 통한 짜임새로 일관한다. 성난 젊은이의 분통을 터트리는 이런 음악은 더 이상 전시대의 유행도 아니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표현이다. 동 유럽의 다양한 민속음악과 언어에서 발견된 음절, 억양 같은 요소들은 작곡가의 음악 언어에 지대한 영향과 효과를 불러 온다. 헝가리 태생의 Bartok 은 작곡가인 동시에 훌륭한 피아니스트로서 소곡에서 콘체르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피아노곡을 남겼으며, 그 외에 현악 사중주곡, 관현악 곡 등, 그의 방대한 작곡문헌은 동시대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폭발적인 리듬과 헨데르크의 비조성 음악개념과도 상통한다. 그의 탁월한 관현악곡처리 방식은 거의 추종할 세력이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며 지대하다.

이 화 연 Wha-Yeon Lee *시편24 Psalm24* (2003, 26세)

marimba 김단비 piano 황다운



성경의 시편24는 "누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세편의 단락으로 다윗이 노래한다. 3악장으로 구성된 이 음악은 우리 사물놀이의 다양한 리듬패턴을 사용하여 작품의 특징적 요소로 펼쳐간다.

* 이 화 연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작곡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현재 동아대학교, 부산여대, 부산예고 출강.

정 희 영 Hee-Young Chung *두 편의 노래; 불면증 Insomnia* (2007, 27세); *태풍의 밤 The Night of Tempest*



soprano 김유진 flute 최낙주 clarinet 권병옥 cello 박정열 piano 김선화

시집 "느리고 고통스럽고 평화로운 음악이 필요하다"에서 발췌하여 작곡한 세 곡 중, 여기서는 두곡만을 연주 한다. '불면증'은 고독하고 고통 받는 자아의 불안정한 절망감을, '태풍의 밤'은 그릇된 희망과 절망을 태풍과 함께 소멸 시킨다는 내용으로 다루었다.

* 정 희 영 부산예고,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Florida State University, 작곡전공, 현재 음악박사 학위 후보자.

박 정 영 Elliot Bark *샬롬 Shalom for Flute and Piano* (2009, 29세)

flute 최낙주 piano 김선화



혼잡하고 이기적이며 무질서한 세상에서 나는 샬롬을 갈망하며 산다. New York, Youth 심포니에 의해 위촉된 이 작품을 여기서는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해 정리된 곡으로 연주한다.

* 박 정 영 경성대학교 재학 시 도미하여, 현재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2010년 보던 국제음악제에서 작곡상을 포함한 수많은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 용 철 Young-Chul Oh *태극기 Taekugki for Flute, Clarinet and Violoncello* (2010, 33세)

flute 최낙주 clarinet 권병옥 cello 박정열



태극기가 지닌 오묘한 진리를 찾으면서 작품을 착안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요소중,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으로 집합된 '괘'를 주목하고, 양(-)과 음(-)의 개념으로 구성하여 작품을 전개 했다. 양과 음의 대비를 자연과 인생의 모습으로 함축.

* 오 용 철 영남대학교에서 대학공부를 시작, 현재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음악가협회의 콩쿠르에 입상 하는 등, 국 내 외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정윤 (piano)	부산대학교, 뉴 잉글랜드 음악학교,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 음악박사.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출강.
이진성 (piano)	서울대학교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diplom, 대트볼드 Konzertexamen과정 졸업. 경성대학교, 인제대학교 출강.
김선화 (piano)	부산대학교 졸업.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음악원 디플롬 및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동의대학교 출강.
황다운 (piano)	부산대학교 졸업, 동 대학원 재학.
박광식 (violin)	부산대학교 졸업.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Ensemble Soundings 리더. 울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출강.
김채원 (violin)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졸업. 뉴 프라임 오케스트라 단원. 앙상블 사운딩스 멤버.
김세연 (viola)	동의대학교 졸업. 뉴 프라임 오케스트라 단원. 앙상블 사운딩스 멤버.
박정열 (cello)	동아대학교 졸업.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음악원 졸업. 뉴 프라임 오케스트라 수석.
장여정 (cello)	동의대학교 졸업. 뉴 프라임 오케스트라 단원. 앙상블 사운딩스 단원.
최낙주 (flute)	경북대학교 졸업.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졸업.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예고 및 예중 출강.
권병옥 (clarinet)	동의대학교 졸업. YMCA 네오 필 오케스트라 단원. 부산 클라리넷 콰르텟 멤버.
김단비 (marimba)	부산대학교 졸업, 동 대학원 재학.
김유진 (soprano)	부산대학교 졸업.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 졸업.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예고 출강.

실내악 초연의 밤
말과 음악 I

여성작곡가 포럼 I

20세기 회고

심포지움 : 우리시대 음악
- 대립과 공존

대학작곡가들의 소리

MiOT 보고서 발간
대립 · 공존 선택 I

대립 · 공존 선택 II

대립 · 공존 선택 III

김철화 추모음악회

10주년 기념음악회

말과 음악 II
우리시대음악 - '어제와 오늘'

여성작곡가 포럼 II

젊은 작곡가들: 그때와 지금

MiOT 1998. 11. 18 경성대 콘서트 홀 - 리게티, 조은옥, 멜파엘, 강순희

MiOT 1999. 10. 19 문화회관 중강당
베리오, 이영자, 김철화, 이강울, 찰스 아이브스, 강순희

MiOT 1999. 11. 11 문화회관 중강당
이옥영, 강영화, 우경주, 신영순, 김보현, 이명순, 정수란

MiOT 2000. 10. 26 경성대 콘서트 홀 - MUSE 앙상블과 공동연주
A. Schoenberg, E. Carter, W. Lutoslawski, 이상근, 강순희

민속음악학회와 공동개최
주제 "현대음악의 다 방향적 확산과 문화적 정체성"

2001. 04. 06~07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인덕관

MiOT 2001. 12. 03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김창대, 김민지, 고하나, 천득우, 김한혜, 조경목, 이정은, 이영은, 권유미, 백현주, 이새아, 배진의, 진소영

MiOT 1998~2002 세종출판사

MiOT 2002. 11. 21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Melby, 김철화, 윤소희, Feldman, 강순희, Gryc

MiOT 2003. 10. 21 경성대 콘서트홀
G. Schuller, 이명순, 김철화, 신영순, 김정옥

MiOT 2004. 11. 05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크리스토프 펜드레스키, 강순희, 김봉호, 강석희, 김철화

MiOT 2006. 10. 24 경성대 콘서트홀
시무엘 바버, 백용주, 김철화

MiOT 2007. 10. 23 경성대 콘서트홀
프레데릭 제프스키, 오세일, 전경호, 강순희

MiOT 2008. 10. 16 경성대 콘서트홀
천득우, 김종욱, 강순미, 이규봉, 벤지민 브리튼

MiOT 2009. 10. 20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스티브 라이쉬, 강순희, 김정길, 루치아노 베리오, 데이비드스키, 최인식

MiOT 2010. 10. 28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양성남, 김정옥, 조인선, 홍신주, 강영화, 서경선

MiOT 2011. 11. 1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I. Stravinsky, A. Webern, B. Bartok, 이화연, 정희영, 박정영, 오용철 **계속**

MiOT 활동